

언어로 보는 중국의 ‘코로나19’*

- 2020년 10대 신조어를 중심으로

김주아**

목 차

1. 서론
 - 1) 선행연구 검토
2. 중국의 전염병 사례와 언어변화
 - 1) 중국의 언어를 통한 사회 인식
 - 2) ‘코로나19’ 이전의 전염병 사례와 언어변화
 - 3) ‘코로나19’ 로 인한 언어변화
3. 2020년 신조어로 보는 중국의 ‘코로나19’
 - 1) 경제관련 어휘
 - 2) 의학관련 어휘
 - 3) 기타
4. 결론

국문초록

‘코로나19’는 특정 국가의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를 강타한 만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어휘 및 표현, 즉 ‘신조어’가 대량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언어변화는 ‘코로나19’라는 질병을 지칭하고 설명하기 위한 의학용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구조적인 변화와 삶의 영역 및 심리적인 부분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신조어와 이 시기에 많이 사용된 어휘들을 통해, ‘코로나19’를 마주하는 그 사회(언어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6A3A02102737).

**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권)의 단상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코로나19’를 발견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중국 사회에서 일어난 언어변화를 통해, 2020년 중국이 겪은 사회변화와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키워드: ‘코로나19’, 중국, 신조어, 전염병, 언어변화

1. 서론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는 2020년 3월 11일 WHO가 팬데믹을 선포한 이후 지금까지 인류의 일상에 대변혁을 일으키고 있다.¹⁾ 특히, 2020년을 정점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인류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가 국제사회에 끼친 10가지 영향을 분석한 LIVE SCIENCE는 그 첫 번째 파급력으로 다량의 신조어(New vocabulary) 탄생을 들었다.²⁾ 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2020년을 총결산하는 대표적인 단어(word of year)를 발표했는데, 모두 ‘코로나19’와 관련된 단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Merriam-Webster 사전은 ‘팬데믹(pandemic)’을 영국의 Cambridge 사전은 ‘격리(quarantine)’를 선정했고, 싱가포르의 ‘罩(마스크)’, 일본은 ‘密(밀)’, 브라질은 ‘luto(애도)’를 각각 선정해 ‘코로나19’의 ‘泛유행(pandemic)’으로서의 위용을 과시했다.

인류사회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겪은 수많은 이슈 가운데, 기술혁명으로 인한 언어의 사회적 영향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재난이 이처럼 사회언어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그만큼,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일상의 패턴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는

1) ‘코로나19’의 공식 명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이지만, 본문에서는 이해의 편의와 가독성을 고려해 ‘코로나19’로 통합 지칭하였다.

2) <https://www.livescience.com/ways-covid-19-changed-the-world-2020.html>

방증이다. 물론, 그 이유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파괴력 자체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인류사회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또한, 질병에 대한 위기의식의 제고로 사회질서의 변화를 유발했고, 이러한 변화가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에 반영되어 언어로 표출된 것이다.

1) 선행연구검토

'코로나19'가 처음 발견된 것은 2019년 말이지만 사람들에게 인식되며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2020년대 초반이다. 시간상으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공존하기 시작한 것은 1년 남짓 되었지만, 그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벌써 각계각층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다.

(1)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비(非)언어학계의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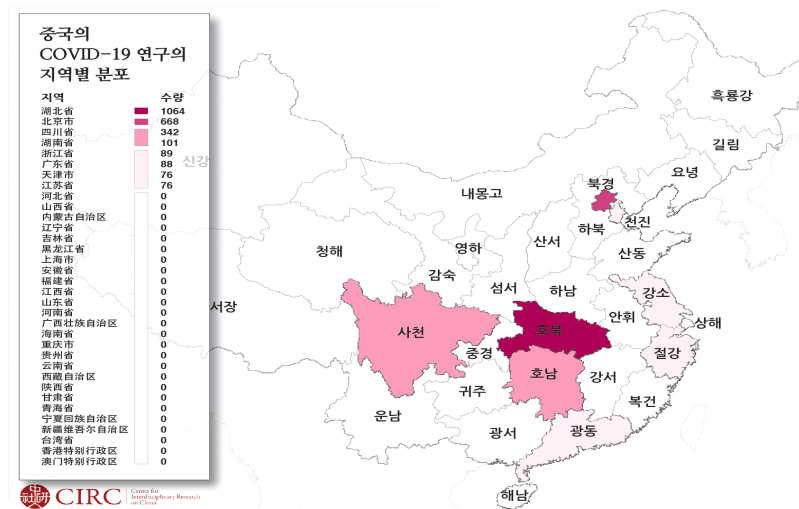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초기 발생 상황과 비교해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관련 연구는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논문검색 사이트인 CNKI(知網)에서는 2020년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전문코너'를 신설하여 관련 연구를 탑재하고 있다.³⁾ 물론, 여기에서는 주로 의학 관련 연구성과들을 수집하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CNKI 논문 검색란에 '코로나19'의 중국 명칭인 '新型冠状病毒肺炎'를 검색하면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포함해 모두 18만여 건의 논문이 검색될 정도로(2021년 2월 24일 기준) 양적으로 방대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아래의 지도는 이러한 연구성과 중에서도 기관별 연구

3) '코로나19' 플랫폼: <https://cajn.cnki.net/xgbt>

Open Access (OA) Online-First Publishing of Research Papers on COVID-19

성과를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그림1>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지역별 연구 현황



출처: <https://circ.kookmin.ac.kr/xe2010/knowledgemap/13201562>, 필자가 작성한 자료 참고.

기관별로 보면 湖北省 武漢에 있는 華中科技大學 同濟醫學院의 부속병원인 同濟醫院에서 366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 병원의 汪暉교수가 총 56편의 논문을 발표해 연구자별 연구성과에서도 가장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연구성과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의학 분야의 연구성과가 주를 이루다 보니, 외국어(영문) 논문이 16만 9,800편으로 중문 1만 3,900편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연구성과는 지난해(2020년) 가장 많은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2021년도 초반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하고 있다. 학문 분야별로 보면 주로 과학·기술 분야 중에서도 의학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호흡기 계통 질병(4,310편)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⁴⁾ 특히, 코로나 위기가 코로나 특수로 인식되면서, 향후 중국의 '코로나

19' 관련 연구는 양적인 증가와 함께 학문 분야의 다양성 등 질적인 변화도 예상된다.

(2)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언어학계의 연구

중국의 언어학계에서도 최근 들어, '코로나19'에 관한 연구성과들을 논문 또는 칼럼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다. 물론,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하면 언어학계의 연구성과는 많지 않지만, 역대 전염병 사례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侯敏, 滕永林(2020)은 9개의 신문사와 중국의 대표적인 저녁 뉴스인 '新聞聯播'의 보도내용을 바탕으로 자체 코퍼스(2020년 1월 1일~4월 9일)를 제작하여 '코로나19'의 명칭과 중국의 방역 활동, '復工復產(업무복귀와 생산재계)', 글로벌 방역 등을 소개하며 중국의 '코로나19' 극복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田永芳(2020)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했다. 사회의 변동과정이 어떻게 언어를 통해 구현되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李成偉(2020)는 2020년 중국 농촌의 '코로나19' 방역 관련하여 농촌 지역의 슬로건(標語)의 기능과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饒高琦(2020)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기간 방역 전선에서 언어서비스팀이 응급언어서비스를 위해 채택한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주로 코퍼스 기술과 voice frequency(VF), 텍스트 검색기술, 기계번역과 기계 보조 번역기술, 텍스트 분석계산기술 등이다. 陶源, 趙浩(2020)는 의학 용어의 명명(命名) 규범의 관점에서 이번 '코로나19' 명칭의 확정과 관련 논쟁에 대해 논의하면서, 응급 언어능력에 관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陳明珠, 謝群(2020)은 코퍼스 계량화 분석을 통해 인민일보(영문판)의 '코로나19'

4) Open Access (OA)의 분야별 연구성과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상 연구(1,799편), 임상 연구-특수그룹(142편), 임상 연구-합병증(127편), 약학 연구(437편), 지침/인식(657편), '코로나19'(2019新型冠状病毒, 244편), 백신 연구(60편), 바이러스 통제(720편), 병원 관리(437편), 심리 보건 (253편) 등이다.

관련 대외보도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민일보 영문판은 모두 646차례에 걸쳐 모호한 제목을 사용하였다. 국내에서는 최태훈(2020)이 비판적 담화분석의 방법론에 근거하여 환구시보 사설이 만들어내는 ‘코로나 19’ 국면 담화 질서(Orders of Discourse)의 양상 및 재편 과정을 고찰했다.

2. 중국의 전염병 사례와 언어변화

본문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재난이 사회에 미치는 언어적 변화를 주목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중국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올해의 언어’를 살펴보고, 유행성 전염병 사례가 있었던 해의 중국 사회의 언어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1) 중국의 언어를 통한 사회 인식

중국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많이 회자한 어휘를 통해 해당 연도를 돌아보고자 하는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도부터다. 아래 표에 제시된 것처럼, 연도별 10대 유행어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주제를 나타내고 있어 중국사회의 변화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⁵⁾

5) 해마다 선정하는 10대 유행어의 어휘수집자료는 주로 신문지로 ‘발행량과 지역분포, 발행주기, 매체의 인지도 및 구독률을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대상 신문지로는 《北京青年報》, 《北京日報》, 《北京晚報》, 《法制日報》, 《光明日報》, 《廣州日報》, 《華西都市報》, 《環球時報》, 《今晚報》, 《經濟日報》, 《南方週末》, 《人民日報》, 《深圳特區報》, 《新民晚報》, 《羊城晚報》, 《揚子晚報》, 《中國青年報》 등이 있다. 이들 신문자료에 출현한 단어를 중심으로 정량적 분석을 거친 뒤,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오프라인의 투표 결과를 취합해 최종발표한다. http://www.moe.gov.cn/s78/A19/s8358/moe_815/tnull_18000.html 중국의 교육부 자료 참고.

〈표1〉 중국의 연도별 10대 유행어⁶⁾

| | |
|-------|--|
| 1950년 | ①失業 ②抗美援朝 ③私營 ④保衛世界和平 ⑤保家衛國 ⑥土地改革 ⑦戰爭販子 ⑧合作社 ⑨解放臺灣 ⑩翻身 |
| 1960년 | ①支援農業 ②毛主席著作 ③備戰 ④三面紅旗 ⑤一窮二白 ⑥持續躍進 ⑦自力更生 ⑧現代修正主義 ⑨標兵 ⑩羣英會 |
| 1970년 | ①西哈努克親王 ②改造世界觀 ③巴勒斯坦 ④革命樣板戲 ⑤新黨章 ⑥整黨建黨 ⑦天天讀 ⑧四條漢子 ⑨現代京劇 ⑩楊子榮 |
| 1980년 | ①浩劫 ②八十年代 ③體制 ④愛情 ⑤電視機 ⑥住房 ⑦動亂 ⑧待業 ⑨就業 ⑩高考 |
| 1990년 | ①亞運會 ②九十年代 ③海灣危機 ④一流 ⑤開發區 ⑥開發浦東 ⑦窗口 ⑧規範 ⑨客戶 ⑩整治 |
| 2000년 | ①21世紀 ②電子商務 ③新千年 ④西部大開發 ⑤平臺 ⑥信息技術 ⑦全球化 ⑧WTO ⑨信息化 ⑩彩票 |
| 2001년 | ①三個代表 ②APEC ③入世 ④申奧 ⑤知識產權 ⑥恐怖主義 ⑦園區 ⑧研發 ⑨邪教 ⑩創意 |
| 2002년 | ①十六大 ②與時俱進 ③整合 ④誠信 ⑤反恐 ⑥信用 ⑦IT ⑧傳媒 ⑨覈查 ⑩申博 |
| 2003년 | ①非典 ②伊拉克戰爭 ③全面建設小康社會 ④疑似 ⑤抗非 ⑥世界衛生組織 ⑦執政爲民 ⑧以胡錦濤同志爲總書記的黨中央 ⑨“神舟”五號 ⑩以人爲本 |
| 2004년 | ①科學發展觀 ②執政能力 ③雅典奧運 ④禽流感 ⑤中超 ⑥劉翔 ⑦行政許可 ⑧三農 ⑨F1 ⑩印度洋海嘯 |

출처: 文匯報 2005년 1월 26일 자료 인용.

이후, 이러한 언어 모니터링 작업은 더욱 체계를 갖추기 시작해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관리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 언어자원 모니터링 연구센터(國家語言資源監測與研究中心)와 중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출판사인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은 2006년부터 네티즌이 선정한 올해의 중국어 프로젝트, 일명 ‘漢語盤點’을 진행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모두 5개 영역별로 올해의 어휘를 선정한다. 먼저, ‘올해의 한자와 단어’ 즉,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해당연도의 중국과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한자(字)와 단어(詞)를 각각 선정한다. 그 밖에도, 올해의 10대 신조어, 10대 유행어, 10대 인터넷 용어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⁷⁾ 중국의 이러한 활동은 국가기관에서 언어를 통해 사회변화를 인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사회의 특성상 국민 정서 즉, 순수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기보다는 국가의 정책 방향

6) 참고로 2006년 이전, 중국의 ‘10대 유행어’ 자료는 발표기관에 따라 상이함.

7) 예를 들어, 본 언어 프로젝트가 처음 실행된 2006년도의 국내를 대표하는 한자와 어휘는 각각 ‘炒’와 ‘화합(和諧)’가 선정되었고,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한자와 어휘로는 ‘亂’과 ‘석유(石油)’가 선정되었다.

에 따라 미디어에 노출된 사회 이슈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틀로 인식하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2) '코로나19' 이전의 전염병 사례와 언어변화

(1)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발생한 전염병 사태

1949년 신중국이 성립된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모두 6차례의 범유행 전염병 사태가 발생했다. 먼저, 1957년 '아시아 독감(H2N2)'을 시작으로 1968년 '홍콩독감(H3N2)', 2002년 '사스(SARS)',⁸⁾ 2009년 '신종플루(H1N1)',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에 이어 2019년 '코로나19'를 겪었다.⁹⁾ 이중 '서아프리카 에볼라'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에서 발견되었거나 중국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 가운데 WHO에 의해 팬데믹으로 선포된 사례는 '홍콩독감'(1968)과 '신종플루'(2009), '코로나19'(2020)가 있다.

먼저, '홍콩독감(Hong Kong flu)'은 1968년 7월에 홍콩에서 처음 발견된 유행성 독감이다. 이 전염병은 1957년에 중국 구이저우(貴州)에서 발견된 아시아 독감의 변이종으로 이 두 질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각각 100만 명에서 400만 명이 사망하였다. 발병지역인 홍콩에서만 당시 인구의 15%인 50만 명이 감염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¹⁰⁾ 물론 이 당시 홍콩은 아직 중국에 반환되기 전인 데다가 문화대혁명 기간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01년 WTO의 정식 회원국으로 등록하면서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 뛰어들었다. 이처럼 삼페인을 터트리며 21세기를 시작했지만, 2002

8)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重症急性呼吸器症候群.

9) 段妍, 「新中國成立以來應對重大突發疫情的歷史回顧與經驗啓示」,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6期, 2020, 93쪽. 참고한 논문에서는 '코로나19'는 포함하지 않고, 5개의 주요 감염병 사례만을 소개했다.

10) <https://www.scmp.com/news/hong-kong/health-environment/article/3118062/hong-kong-fourth-wave-pfizer-vaccine-concern-must>

년을 마무리하는 겨울에 중국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병이 돌기 시작했다. 나중에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명명된 이 질병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팬데믹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광둥(廣東) 지역에서 출현하여 아시아 지역과 북미지역에 전파되어 약 7개월 동안 8,0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774만 명의 사망자를 기록할 정도로 타격이 컸다. 중국에서만 5,327여 명이 감염되고, 이 중에서 349명이 사망했으며, 특히, 홍콩에서는 1,755명이 감염되어 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대만지역에서도 665건의 감염사례가 있었고, 180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

'홍콩독감'에 이어 두 번째 팬데믹으로 지정된 '신종플루(Influenza A virus subtype)'는 2009년 3월 미국에서 시작된 신종 인플루엔자 A(H1N1)로 A형 인플루엔자의 변이 바이러스이다. 이 질병으로 전 세계 214개국 이상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18,500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전염병이다. 중국도 모두 120,498명이 확진되었고, 648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당시 한국에서도 759,678명이 확진되고 263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컸지만, 사스에 비하면 치사율이 높지 않았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9년 겨울, 중국 우한지역에서 출현한 '코로나19'는 여느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불청객처럼 우리의 일상에 침입해 인류를 긴장시키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바로 옆에 있는 중국에서 사스가 발생했을 때도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거리상으로 먼 중동에서 시작된 중증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가 뜻하지 않게 우리의 일상을 강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코로나19'는 2021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8,540,982명이 감염되고, 2,808,308명이 사망해 2.1%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102,790명이 확진되었으며 4,851명이 사망해 4.7%의 치사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04,194명이 확진되었으며 1,737명이 사망해 치사율 1.6%를 기록하고 있다.¹¹⁾ 이처럼, 19

11) 전세계 통계, WHO자료 참고(<https://covid19.who.int/>), 한국통계, 질병관리청 자료

48년 WHO가 설립된 이래 모두 3차례의 팬데믹 선포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2) 중국의 주요 전염병 사례와 언어변화

최근 중국을 강타한 전염병 사례가 ‘올해의 한자와 단어’에 반영된 결과를 통해 해당 질병에 대한 중국사회의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팬데믹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에서 발생해 중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던 SARS는 중국인의 언어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에서는 속칭 ‘페이디엔(非典)’으로 불린 이 질병은 2002년 겨울에 발생하여 2003년 전 세계로 확산한 신종전염병이다. 따라서, 2002년 중국에서 유행한 어휘에는 관련 단어가 출현하지 않는다.¹²⁾ 하지만, 2003년 상반기 유행어에는 종합영역에¹³⁾ 사스가 포함되기 시작했고 사스 관련 유행어도 수집되었다.¹⁴⁾ 2003년 말에 최종 확정된 올해의 어휘 종합편에는 사스가 1위로 선정되었다.¹⁵⁾ 한편, 신종플루가 대유행했던 2009년에는 ‘甲型H1N1流感(신종플루)’가 5위를 기록하고 있다.¹⁶⁾ 즉, 전 세계적으로는 WHO에서 최초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신종플루’의 위력이 막강했지만, 중국의

참고(<http://ncov.mohw.go.kr/>), 중국통계, 바이두 실시간 자료 참고, (https://voice.baidu.com/act/newpneumonia/newpneumonia/?from=osari_aladin_banner#tab4), 2021년 04월 02일 검색.

- 12) 十六大, 世界盃, 短信, 降息, 三個代表, 反恐, 數字影像, 姚明, 車市, CDMA(순위별 배열)
 13) 非典 (SARS), 疫情, 消毒, 隔離, 巴格達, 薩達姆, 三峽, 疑似, 伊拉克戰爭, 世界衛生組織 (WHO)
 14) 상반기: 非典 (SARS), 疫情, 消毒, 隔離, 抗擊非典, 疑似, 口罩, 體溫, 防控, 世界衛生組織 / 하반기: 非典, 疫情, 疑似, 隔離, 冠狀病毒, 應急預案, 口罩, 消毒, 發燒門診, 世界衛生組織 http://www.moe.gov.cn/s78/A19/s8358/moe_815/tnull_18000.html (중국 교육부 사이트) 참고.
 15) ①非典, ②神五號, ③伊拉克戰爭, ④全面建設小康社會, ⑤十六屆三中全會, ⑥三峽工程, ⑦社保基金, ⑧奧運公園, ⑨六方會談, ⑩新一屆中央領導集體.
 16) 2009년의 10대 유행어와 신조어로는 ①被時代, ②躲猫猫, ③蝸居族, ④釣魚執法, ⑤甲型H1N1流感, ⑥臨時性, ⑦翻牆, ⑧窮二代, ⑨70罵, ⑩壓力差가 선정되었다. 劉芹, 「盤點 2009 年度十大流行新詞語」, 『新作文』, 2009.

언어변화를 통해 살펴본 중국 내의 체감 영향력은 역시 '사스(1위)'가 '신종플루(5위)'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언어변화

(1) 2020년을 대표하는 '올해의 한자와 단어'

2002년 사스와 마찬가지로 겨울에 시작해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春節)'에 확산하기 시작한 '코로나19'는 2019년 겨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민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새해를 맞이하여 민족의 대이동이 발생하는 설 명절을 전후로 질병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2020년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코로나19' 관련 이슈는 그 영향력만큼이나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어휘들을 생산해 냈다.

'코로나19'의 해로 기억될 정도로 뜨거웠던 2020년 한해를 회고하며, 중국에서도 중국과 해외를 대표하는 한자와 단어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국내(중국)를 대표하는 한자는 '民(인민)', 단어는 '脫貧攻堅(빈곤 탈출의 난관 돌파)'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국외를 대표하는 한자와 단어는 각각 '疫(바이러스)'과 '新冠疫情(코로나19)'이 선정되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코로나19' 관련 어휘가 중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한자와 단어로 선정된 것이다. 물론 역대 전염성 질환이 유행했던 해에도 질병과 관련된 어휘가 올해의 한자와 단어로 선정된 적은 없었다.¹⁷⁾

(2) '코로나19' 방역 기간 언어서비스

'언어변화'의 관점에서 기존의 전염병 사태와의 또 다른 점으로는 '의료계

17) 신종플루가 창궐했던 2009년도 국내외를 대표하는 한자와 단어는 각각 '被(당하다), 民生(민생)'과 '浮(뜨다), 金融危機(금융위기)'였다. '올해의 한자와 단어' 선정은 2006년도부터 실행되어 사스가 창궐했던 2003년도에는 해당 자료가 없다.

난에 따른 언어서비스'를 들 수 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중국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언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교육부와 국가 언어위원회의 관할 하에 베이징어언대학, 우한대학, 화중사범대학, 칭화대학 등 학계와 정부의 관련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방역 언어서비스 팀(Language Service Corps)'을 구성하여 '전염병 퇴치를 위한 후베이방언통(handbook on Hubei dialects to help medical workers)'을 연구·개발하여 타지에서 후베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의료진과 환자의 언어 소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한과 이 지역의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한 것이다. 이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방역언어 서비스팀'을 구성하여 '코로나19 방역 외국어통(A Guide to the Control and Treatment of COVID-19 Epidemic in Foreign Languages)'을 제작해 중국 내 유학생들과 외국인들에게 방역 및 진료와 관련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존의 전염병 사태 때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적극적인 방역 지원 사업을 펼쳤다.

(3) '코로나19' 용어수집 현황과 사례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발견되었지만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 216개국과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중국어는 물론 세계 각국의 언어생활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유럽과 북미지역에서 많은 사상자를 낸 뒤, 이들 국가에서도 '코로나19' 관련된 새로운 단어(新語)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옥스퍼드 코로나19 언어 허브'에서는 최신 언어연구 및 자원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옥스퍼드는 사이트를 통해 세계 주요 언어에서 사용되는 '코로나19' 관련 핵심어휘를 제공하고 있다.¹⁸⁾ 영국 옥스퍼드사전에서는 지난 4월 이후 '코로나19' 관련 신조어를 사전에 업데이트하고, 관련 주제의 말뭉치(corpus) 분석을 블로그에 제시하고 있다.¹⁹⁾ 독일

18) <https://languages.oup.com/covid-19-language-resources/>

19) <https://public.oed.com/blog/corpus-analysis-of-the-language-of-covid-19/>, 이수진, 강현아, 남길임(2020) 참고.

IDS에서는 600여 개의 '코로나19' 관련 신조어를 수집하고 용례와 뜻풀이를 제공하고 있으며,²⁰⁾ BYU 말뭉치(English Corpora.org)에서는 전 세계 웹 뉴스를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말뭉치를 구축하였다.²¹⁾ 일본의 경우 출판사와 미디어에서 관련 용어를 수집하여 보급하고 있다.²²⁾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중국에서도 2권의 '코로나19' 관련 사전이 편찬되었다. 푸단대학 출판사는 '중·영 코로나19 사전'과 '영·중 코로나19 사전'을 편찬했다.²³⁾ 영·중사전에는 모두 7,657개의 어휘가 수록되어 있다. 영·중 '코로나19' 사전은 '코로나19' 대응 배경에서 편찬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동안 영어 저널과 전문 학술지에 빈번하게 등장한 각종 단어 7,657개가 수록되어 있다. 본 사전에는 101개의 축약어도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의학용어다. 중·영 사전에는 모두 7,683개의 어휘가 수록되어 있으며 대부분 '코로나19' 관련된 출현 빈도수가 높은 어휘와 어구 및 전문용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앞서 영·중사전이 영어권의 '코로나19' 관련 용어 및 문구를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라면, 중·영사전은 영·중사전의 내용을 기반으로 빈도수가 높은 어휘와 문구를 중심으로 제작되었다.²⁴⁾ 영·중사전은 2020년 5월에 전자책으로 출간되었고, 중·영 사전은 2020년 11월에 종이책으로 출판되었다.

언어 행위는 일방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특히 신조어의 생성과 변화, 발전은 쌍방향으로 일어난다. 언택트와 비대면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의 만남이 제한되고 축소되었는데, 어떻게 단기간에 이렇

20) Leibniz-Institut für Deutsche Sprache, 상동.

21) <https://www.english-corpora.org/corona/>, 상동.

22) <https://dictionary.sanseido-publ.co.jp/column/goi18>, <https://media.voista.jp/life/covid-19-glossary/https://news.yahoo.co.jp/articles/3ae9618f7f199396a9d72c454ce02d80d1ec1381>, 이해미(2020년) 참고.

23) 漢英新冠詞典(An English-Chinese Dictionary of Terms Related to COVID-19), 英漢新冠詞典(A Chinese-English Dictionary of Terms Related to COVID-19)

24) 예를 들어, 전염(傳染, to infect; infection), 이동병원(方艙醫院, mobile/cabin hospital; makeshift hospital), 사회적 거리 유지(保持社交距離, to maintain social distancing; to keep physical distancing) 등이 있다.

게 많은 신조어가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었을까?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활동의 활성화로 인해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더욱 빈번한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3. 2020년 신조어로 보는 중국의 ‘코로나19’

2020년 12월 16일 언어자원센터에서 발표한 ‘2020년도 중국의 10대 신조어’는 다음과 같다.

〈표2〉 2020년 중국의 10대 신조어의 순위별·분야별 분류

| 2020년 10대 신조어 | | 경제 | 의학 | 기타 |
|---------------|-------------------|--------|---------|-------|
| 순 위 별 | ①復工復產(업무복귀, 생산재개) | ①復工復產 | ②新冠疫情 | ⑨天問一號 |
| | ②新冠疫情(코로나19) | ⑥數字人民幣 | ③無症狀感染者 | |
| | ③無症狀感染者(무증상감염자) | ⑦服貿會 | ④方艙醫院 | |
| | ④方艙醫院(임시병원) | ⑧雙循環 | ⑤健康碼 | |
| | ⑤健康碼(건강코드) | ⑩無接觸配送 | | |
| | ⑥數字人民幣(디지털 인민폐) | | | |
| | ⑦服貿會(무역컨퍼런스) | | | |
| | ⑧雙循環(쌍순환) | | | |
| | ⑨天問一號(천문일호) | | | |
| | ⑩無接觸配送(비대면배송) | | | |

출처: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에 게시된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

2020년 중국의 10대 신조어 가운데 ‘코로나19’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단어는 6개(1, 2, 3, 4, 5, 10번)이고, 그렇지 않은 단어가 4개(6, 7, 8, 9번)이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 관련 어휘가 가장 많은 5개(1, 6, 7, 8, 10번)를 차지했는데, 이 중에서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단어는 두 개(1, 10번)이다. 이 밖에도 의학용어가 4개(2, 3, 4, 5) 선정되었는데, 이는 모두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휘이다. 해마다 선정되는 신조어로 의학용어가 선정되는 경

우는 많지 않다. 사스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범유행성 질병이 발생한 해에도 관련 질병의 명칭 등 일부 어휘가 선정되는 예는 있어도 이처럼 전체 신조어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어휘가 의학용어로 선정된 것은 전례가 없다. 그만큼 '코로나19'의 파급력이 역대 전염병과 비교해서도 강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장에서는 2020년 중국의 10대 신조어를 분야별로 자세히 검토함으로써, '코로나19'의 영향과 그에 따른 중국사회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관련 어휘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타격은 역대 전염병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영향을 미쳤다. 2020년도 1분기 중국의 GDP는 동기대비 6.8%나 하락했다. 분기별 경제성장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정보통신(IT, 정보전달,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서비스업 등)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숙박업종과 요식업은 동기대비 35.5%가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0년도 1분기 티베트 지역이 1.0%를 성장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역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었던 후베이성의 경우 1분기 GDP가 -39.2%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파급력을 보였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소비재와 도소매업, 투자, 수출입, 평균소득 등 주요 경제지표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²⁵⁾ 이러한 역대급 파급효과를 사람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17년 전에 중국을 휩쓸었던 또 다른 역병(疫病)인 사스가 중국경제에 미친 영향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CAFI(中國普惠金融研究院)의 분석에 따르면 2003년도 중국의 GDP는 분기별로 각각 11.1%, 9.1%, 10%, 10%를 기록했다.²⁶⁾ 즉, 사스가 중국 전역에 창궐했던 2003년도 중국경제가 이로 인

25) 劉帥, 「新冠肺炎疫情對中國區域經濟的影響」, 『地理研究』, 第40卷 第2期, 2021.

한 타격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2분기에 한해서 일시적인 영향에 그쳤고, 이후 중국의 경제는 성장 가도를 달렸다. 물론, 당시 가장 큰 피해를 보았던 홍콩의 경우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된다. 특히,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주로 ‘교통과 운수, 숙박과 요식업, 관광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²⁷⁾ 이는 전염병의 특성상 물자 운송과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스의 경우 팬데믹의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이나 투자 및 수출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관련 어휘도 많이 생산되었다. 2020년 10대 신조어로 선정된 10개 어휘 중 경제 분야(5개)의 신조어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復工復產(업무 복귀와 생산 재개, Return to work and production)

‘코로나19’를 제치고 2020년 중국의 10대 신조어 1위로 선정된 ‘復工復產’은 기업이 정상적인 생산과 경영활동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일상의 패러다임을 바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에서는 전면적인 지역사회 봉쇄조치가 이루어졌다. 당시 중국에서는 ‘전시(戰時)상태’를 선포하며 2020년 1월 23일 10시를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처음 발견된 우한시를 전면 봉쇄했다. 이후, 국가적인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 대부분이 ‘停工停產’, 즉 모든 생산활동과 경영활동을 일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70년대 후반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래, ‘세계의 공장’으로 쉴 새 없이 달려오던 중국경제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하지만, 봉쇄조치로 어느 정도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중국 정부는 2020년 2월 3일, 방역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생산기업의 복직과 생산 재개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²⁸⁾

26) 2001~2005년도 중국의 실제 GDP 성장률은 각각 8.3%와 9/1%, 10%, 10/1%, 11/4%를 기록했다.

27) <https://zhuanlan.zhihu.com/p/103896141?from=groupmessage>

(2) 數字人民幣(디지털 인민폐, Digital RMB, e-CNY)

6위로 선정된 디지털 인민폐는 중국 런민은행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이다. 현물 화폐와 동일한 액면가로 전자지갑에 보관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미래형 화폐'라고 할 수 있다.²⁹⁾ 물론, 런민은행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구상계획은 2014년도에 시작되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디지털화폐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위한 시범단계에 이르게 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³⁰⁾ 이처럼, '코로나19'의 뉴노멀화(新常態化)는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을 마비시켰지만, 새로운 경제체제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 사태 속에서도 생존을 위한 인간의 경제활동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대면과 비접촉이 상식이 된 일상에서 중국의 쇼핑과 물류는 빠르게 디지털화로 전향하고 있다. 기존에 쇼핑 분야에 국한되었던 전자상거래는 거의 모든 소비문화로 전이되었고, 이로 인한 전자결제 상용화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3) 服貿會(서비스무역 콘퍼런스, China Beijing International Fair for Trade in Services)³¹⁾

- 28) 3월 4일,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서 단계별로 등급별로 생산을 재개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후 4월 8일에는 '전면적인 업무 복귀와 생산 재개(復工復產)를 추진하였고, 4월 17일에 중앙 정치국에서 '전국적으로 업무 복귀와 생산 재개가 조금씩 정상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라며 중국경제의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 29) 2020년 8월 14일 중국 상무부는 <서비스무역의 혁신적인 발전계획(關於印發全面深化服務貿易創新發展試點總體方案的通知)>을 통해 '여건이 갖춰진 일부 지역(京津冀, 長三角, 粵港澳大灣區及中西部)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가상화폐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8월 21일, 중국에서는 중국은행(中國銀聯)과 바이두(百度公司), 바이싱은행(百興銀行)이 공동으로 출시한 '디지털 인민폐 카드'가 출시되었다. 당시 발행된 디지털 인민폐는 시범지역(4+1, 深圳, 蘇州, 雄安新區, 成都+ 동계올림픽 개최 예정지)에 한해서 발행되었다. 新聞連播, 2020년 8월 21일 보도.
- 30) 趙丹丹, 萬冰彬, 鄭繼媛, 王玉婷, 「冠疫情衝擊影響特徵及行業差異性研究」, 『價格理論與實踐』第3期; 2020. 張莉, 「冠肺炎疫情背景下我國數字經濟加速發展」, 『網絡安全和信息化』第11期, 2020; www.365master.com 등.

7위로 선정된 ‘중국 국제서비스무역 콘퍼런스(CIFTIS)’는 국가에서 개최하는 국제적인 종합무역 플랫폼으로 중국의 서비스 산업의 주요 도입처이자 수출처로 활약하고 있다. 서비스무역 콘퍼런스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유일한 서비스 분야의 무역 콘퍼런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³²⁾ 그렇지만, 2012년부터 시작된 이 콘퍼런스가 2020년도의 신조어로 선정된 이유는 ‘코로나19’ 시대 그 어떤 분야보다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 산업과 디지털 경제가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³³⁾ 특히, 일종의 무역 플랫폼이 신조어의 반열에 오른 이유는 중국 정부가 내세운 ‘쌍순환’ 정책이 성공적으로 반영된 사례로 언론을 통해 보도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통제와 관리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중국의 디지털 산업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인권 문제로 주춤했던 국가들에서조차 디지털 서비스 기술이 이슈화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혁으로 국제적인 수요와 관심이 늘어난 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무역 교류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4) 雙循環(쌍순환, The Dual Circulation Strategy)

8위로 선정된 ‘쌍순환’은 중국경제(內需)와 국제경제(外需)를 조화롭게 발

31) 2012년 당중앙과 국무원의 허가로 상무부와 북경시 인민 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중국(베이징) 국제무역 교역회로 약칭 京交會(베이징교역회)라고 했으나, 2019년 ‘중국 국제서비스무역 교역회’를 줄여서 ‘서비스 무역회’로 부르고 있다.

32)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집합과 이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콘퍼런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전시는 3D 기술이 활용되었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된 이번 콘퍼런스에는 5,372개의 해외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디지털 전시장을 오픈했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상담 건만 해도 55만 건에 달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人民網, 2020年服貿會圓滿落幕, 2020년 9월 10일 보도자료.

33) 업계의 자료에 따르면(www.ciftis.org/),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등장한 서비스 산업은 최근 들어 급성장하고 있다. 2005년에서 2019년까지 전 세계 서비스무역의 평균 증가 속도가 화물무역의 증가 속도를 넘어섰다. 중국의 서비스 업종 증가치는 중국 GDP의 53.9%를 차지하였으며, 서비스무역의 거래량은 7,850억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성장했다.

전시시키고자 하는 중국 사회의 새로운 경제 발전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5월 14일, 중국 중앙정부는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이 상호보완하며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국면'을 제안했다. 5월 하순, '양회(兩會)'기간, 시진핑 총서기는 '국내 6개의 대순환을 위주로 국내외의 쌍순환이 서로 촉진·발전하는 새로운 발전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 이후, '쌍순환'은 경제학계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새로운 경제학 용어가 되었다. 사실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쌍순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도 중국경제를 이끄는 보편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특별히 중국의 지도층이 '쌍순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 중국의 경제학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무역의 길이 막히면서 수출(外需)이 급감함에 따라 내수를 촉진하려는 방편이라고 보는 견해 또는 미·중 무역 충돌의 결과라는 분석이 있다. 즉, 서방세계의 '탈중국화' 움직임으로 인한 디커플링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전환, 즉 체질 변화에 대한 제안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중국경제의 자립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박해졌음을 보여준다.

(5) 無接觸配送(무접촉배송, Contactless distribution/Contactless delivery)

10위에 오른 '무접촉배송'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비대면 배송'이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원격교육 등 외부출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물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환경에서 물건을 배송해야 하는 새로운 현상에서 기인한 용어이다. 즉, 물류와 배송인력이 배송할 물품을 스마트택배함이나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비대면으로 배송을 완료하여 고객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물류배송 서비스이다.³⁴⁾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배송'은 그야말로 안전의 대명사가 되었다.

34)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설 연휴(春節)에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용품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메이투안(美團)은 2020년 1월 26일 업계 최초로 '비대면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메이투안(美團)을 시작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송수요를 겨냥해, 모든 배송 업체에서 비대면 배송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러한 물류 서비스의 폭발적 수요는 중국 정부의 국가정책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인터넷+’, 클라우드와 같은 기술발전 덕분에 단기간에 급성장하였다. 물론 이러한 기술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어느 정도 상용화되었던 기술이었지만, IT 기술에 대한 수요가 단기간에 광범위한 사람을 대상으로 폭증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체험할 기회가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과학 기술이 물류배송 업계에 접목되면서 중국의 ‘비대면 배송’은 디지털화와 온라인화, 자동화, 스마트화, 무인화의 방향으로 더욱 진화하고 있다.³⁵⁾

2) 의학관련 어휘

‘코로나19’의 영향이 역대 다른 질병보다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준 중의 하나가 바로 의학 관련 용어가 신조어로 대량 등록된 것이다. ‘코로나19’ 이전 중국에서 가장 큰 유행성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사스가 발발했던 2003년도에는 사스(非典)라는 의학용어가 신조어 1순위를 기록했지만, 전염병이 명칭이 유일한 의학 관련 신조어였다면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를 지칭하는 ‘新冠疫情’ 외에도 4개의 의학 관련 용어가 신조어로 선정되었다. 이는 ‘코로나19’의 전염성과 위험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1) 新冠疫情(‘코로나19’, Corona Virus Disease 2019, COVID-19)

2위로 선정된 2020년도를 뜨겁게 달군 주인공 ‘新冠疫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新型冠状病毒肺炎)’의 줄임말로 ‘코로나19’를 뜻한다. ‘코로나19’에 대한 언어학계의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2020년도 사람들의 입

35) 王雪情, 「看“無接觸配送”如何“解鎖”物流配送新模式」, 『現代商業』 第35期, 2020.

에 가장 많이 거론된 용어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질환의 명칭일 것이다. 田永芳(2020)의 연구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인민망(人民網)과 관련 플랫폼에서 사용된 '코로나19' 관련 용어의 사용 횟수는 다음과 같다.

〈표3〉 중국의 '코로나19' 학명과 약칭의 사용 빈도 대조표

| | 2019.12 | 2020.1 | 2020.2 | 2020.3 | 2020.4 | 2020.5 | 2020.6 | 2020.7 |
|----------|---------|--------|--------|--------|--------|--------|--------|--------|
| 新型冠状病毒肺炎 | 100 | 249 | 265 | 87 | 51 | 23 | 41 | 21 |
| 新冠肺炎 | 598 | 948 | 1058 | 879 | 460 | 383 | 419 | 234 |

출처: 田永芳, 「語言與社會互動的典型意義」, 『名作欣賞』 第9期, 2020, 재인용.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점차 심화함에 따라, 질병을 지칭하는 용어는 물론 관련 용어의 사용 빈도수도 증가했다.

〈표4〉 중국의 '코로나 19' 관련 어휘의 사용빈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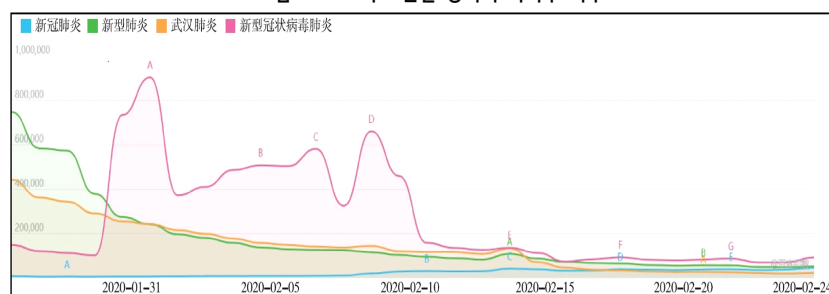
| | 2019.12 | 2020.1 | 2020.2 | 2020.3 | 2020.4 | 2020.5 | 2020.6 | 2020.7 |
|---------------|---------|--------|--------|--------|--------|--------|--------|--------|
| 抗疫 | 266 | 442 | 418 | 283 | 154 | 143 | 140 | 88 |
| 口罩 | 254 | 646 | 573 | 275 | 125 | 85 | 80 | 46 |
| N95口罩 | 36 | 93 | 63 | 29 | 15 | 12 | 9 | 3 |
| 戴口罩 | 57 | 115 | 80 | 46 | 26 | 12 | 18 | 14 |
| 感染 | 486 | 1045 | 828 | 351 | 181 | 92 | 118 | 66 |
| 消毒 | 206 | 336 | 289 | 124 | 76 | 72 | 68 | 39 |
| 海鲜市场 | 58 | 43 | 23 | 29 | 15 | 12 | 9 | 3 |
| 疫情 | 1167 | 1928 | 1868 | 1542 | 865 | 765 | 890 | 423 |
| 聚集性疫情 | 26 | 20 | 40 | 14 | 28 | 13 | 22 | 1 |
| 山川异域, 风月同天 | 0 | 0 | 4 | 2 | 4 | 7 | 0 | 0 |
| 健康码 | 42 | 35 | 25 | 42 | 47 | 25 | 35 | 10 |
| 核酸檢測 | 101 | 132 | 98 | 90 | 47 | 37 | 55 | 25 |

출처: 田永芳, 「語言與社會互動的典型意義」, 『名作欣賞』 第9期, 2020, 재인용.

한편, 중국이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 질병과의 조우에 있어서 초반에 논쟁거리가 되었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용어선정이었다. 처음에는 '신형페렴

(新型肺炎), ‘우한폐렴(武漢肺炎)’, ‘신종 코로나바이러스(新型冠狀病毒)’, ‘신종코로나 폐렴(新冠肺炎)’ 등으로 불렸다. 陶源, 趙浩(2020)의 조사에 따르면 처음에는 ‘신종폐렴(新型肺炎)’과 함께 ‘우한폐렴’이라는 용어도 상당히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2> ‘코로나19’ 관련 용어의 바이두 지수



출처: 陶源, 趙浩, 「論應急語言能力視角下的新型冠狀病毒及新型冠狀病毒肺炎術語命名」, 『北京第二外國語學院學報』第1期, 2020, 재인용.

이러한 용어의 불일치성으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언어학자인 劉丹青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은 ‘신종코로나 폐렴(新冠肺炎)’이라는 약칭을 통일적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³⁶⁾

(2) 無症狀感染者(무증상감염자, Asymptomatic COVID-19 patients)

3위를 기록한 ‘무증상감염자’는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과 같은 증상이 없지만, ‘코로나19’ 진단 결과 양성을 보이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중국에서도 ‘무증상감염자’에 의한 전파와 이에 대해 정부의 데이터 공개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민중의 우려가 반영되어 중국의 미디어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고,³⁷⁾ 중국 정부도 ‘무증상감염자’에 대한 조치에 대한

36) 劉丹青, 馮志偉, 王輝, 李宇明, 王春輝, 方寅, 趙世舉, 鄧畢娟, 「突發公共事件語言應急多人談」, 『語言戰略研究』第2期 總第26期, 2020. 한편, 통계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신종전염병을 뜻하는 ‘新冠疫情’도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보도자료를 내놓기도 했다.³⁸⁾ 이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는 중국에는 대량의 무증상감염사례는 없지만, 만일에 대비해 마스크를 철저히 사용하는 등 개인 방역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우한 아동병원에 입원한 115명의 아동 감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증상감염자 수가 5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³⁹⁾ 이는 얼핏 보면 사안을 바라보는 심각성이나 관점에서 정부와 언론이 온도 차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본 보도는 정부가 왜 무증상자를 공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명 보도에 가깝다. 기사에 따르면, 2011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무증상감염자에 대한 데이터를 상세히 공개했지만, 외부에서 이를 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다.⁴⁰⁾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내세우며 무증상감염자를 확진자에 포함하지 않는 중국 정부의 방역방침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다. 이후, 중국에서는 무증상감염자 수를 공개하기도 했지만, 세계보건기구(WHO)와 한국 등 많은 국가가 무증상감염자를 확진자로 분류하는 반면, 중국 정부는 이를 확진자에는 포함하지 않아 여전히 통계 축소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⁴¹⁾ 이에 대해, 중국 측의 주장은 무증상감염자 중 일부는 숨은 감염자(隱性感染者, covert infection)이거나 잠복기 상태(dormant infection/latent infection)에 있으므로 관리학의 관점에서 무증상감염자를 별도로 분리해야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이다.⁴²⁾

37) 北京日報, 重視對無症狀感染者的防控, 2020년 3월 17일/ 鳳凰網首頁, 無症狀感染者是咋回事, 2020년 4월 10일/ 界面新聞, 無症狀者漸成感染“主力”, 這對疫情意味着什麼? 2020년 7월 20일.

38) 中央紀委國家監委網站, 新聞背景 | 什麼是無症狀感染者, 2020년 3월 30일 11:35
http://www.ccdi.gov.cn/yaowen/202003/t20200330_214444.html

39) 新浪財經, “無症狀感染者數據有望公布 諸多疑惑將解”, 2020년 3월 30일.

40) 논문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11일까지 보고된 중국의 '코로나19' 감염 건수 72,314중 확진 사례는 모두 44,672 (61.8%) 건이었고, 의심 사례는 16,186 (22.4%) 건, 임상진단사례 10,567 (14.6%) 건, 무증상감염자 889 (1.2%) 건 이다.

41) 한국 경제, 통계 조작 논란에...중국, 무증상감염자 1,366명 공개, 2020년 4월 1일.

42) 新京報, 無症狀感染者為何不納入確診病例? 國家衛健委回應, 2020년 5월 15일.

(3) 方艙醫院(임시병원, mobile cabin hospitals / field module hospital)

4위를 기록한 ‘임시병원’은 ‘코로나19’로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기존의 컨벤션홀이나 체육관 등 대형 시설을 개조하여 경증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한 임시병원을 뜻한다. 당시 초스피드로 건설된 거대 병원의 모습이 연신 국내외 뉴스를 장식하면서, 중국인들의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2020년 2월 초,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대량 발생함에 따라 지역 사회 의료 인력과 장비로는 모든 환자를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서면서, 모든 의료 인력과 설비는 과부하상태에 걸렸다. 이 같은 긴급한 의료재난 사태에서 중앙정부는 2월 3일 후베이성에 관리팀을 파견하고, 전국의 29개 성과 시에서 긴급 결성된 22개 긴급의학 구조팀과 3개의 이동 핵산 검사 실험실을 지원했다. 하지만, 모든 의료시설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새로운 의료시설이 필요해지자, 우한시는 컨벤션센터와 체육관을 개조해 경증의 환자들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겨우 하루 남짓한 시간인 2월 5일 10시 우한컨벤션센터(武漢國際會展中心)에 1,500여 장의 침상을 갖춘 강한(江漢) 임시병원이 개설되었다. 이후 10여 일 만에 우한에만 14개의 임시병원이 개설되어 모두 13,000여 개의 침상을 확보하여 12,000명의 경증환자를 치료하였다.⁴³⁾ 이후, 중국에서는 ‘생명의 방주’라고 부른 임시병원에서 활동하는 의료진의 노고와 이를 수호하기 위한 경찰과 지원자의 모습이 연일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었고, 많은 중국인에게 감동과 함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4) 健康碼(건강코드, Health Code)

5위를 기록한 ‘건강코드’는 ‘코로나19’가 낳은 또 다른 신조어로, ‘복공복산’ 정책의 실행을 위한 실천적인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방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각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자동심사를 거쳐 개인의 바코드를 통해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건강

43) “一家方艙醫院的創建史”,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공식계정, 2020년 3월 11일.

상태를 파악하는 일종의 디지털 방역시스템이다. 2월 11일 저장성 항저우시에서 처음으로 출시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항저우에서 출시된 건강코드는 알리바바가 개발했지만, 바로 다음 날인 2월 12일 텐센트 클라우드도 '텐센트 건강코드'를 출시할 것을 선언했다. 텐센트가 제공하는 건강코드는 위챗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용 위챗과 SNS상에서도 통용되어 접근이 쉽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처럼, 업계가 경쟁적으로 이 분야에 뛰어들면서 '건강코드'가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도시의 보건과 안전관리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의 모습 중 하나가 '마스크 착용'이라면, 중국에서는 '건강코드'가 외출의 필수품이 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필수품이 된 IT 기술의 상용화로 야기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⁴⁴⁾

3) 기타

(1) 天問一號(천문 1호, TW-1/Huoxing-1/HX 1)

중국의 10대 신조어 9위를 기록한 '천문 1호'는 중국의 첫 화성탐사선을 가리킨다. 중국 화성탐사선은 '천문(Tianwen)시리즈'라고 부르는데, 이는 굴원의 장편 시 '천문(天問)'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진리에 대한 중화민족의 견인과 애착을 의미한다. 7월 23일 '천문 1호'는 중국의 하이난성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천문 1호는 중국의 항공우주 기술의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최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한참 사투를 벌이고 있는 2020년 4월 24일 중국은 '항공우주의 날(航天日)'을 맞이하여 화성탐사선의 이름을 '천문 1호'라고 한다는 발표를 하였고, 2020년 7월 25일 발사에 성공하면서 축제 분위기에 들어갔다. 3일 뒤인 7월 28일 '천문 1호(화성탐사선)'는 지구와 달

44) 劉密霞, 王益民, 「後疫情時代政府治理中的個人數據使用與保護問題探析」, 『雲南行政學院學報』第1期, 2021.

을 한 쪽에 담은 사진을 전송해 왔다. 이후,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을 선언한 것도 중국의 자부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한편, 한국을 포함한 해외언론은 최근 들어 중국이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넘어 폐쇄적인 국수주의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이는 중국의 국제 이미지 추락 등의 데이터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처음에는 ‘미·중 갈등’으로 불거지면서 양국 또는 서방국가 대 중국의 대립으로 비쳤으나, ‘코로나19’ 이후 중국을 향해 적대 감정을 표출하는 국가와 국제여론이 더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달리 중국 국내 언론은 중국문화와 기술, 제도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는 내용을 연일 송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방역에서 보여준 중국의 제도와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여론을 형성하여 해외언론의 중국에 대한 공격을 반격하는가 하면, 미국 등 서방국가의 방역 실패를 연신 보도하며 중국식 방역의 우월성을 우회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4. 결론

본 논문은 ‘코로나19’이후, 일상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생성된 ‘언어의 변화’에 주목하여, 언어를 통해 중국 사회를 관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20년도에 선정된 ‘10대 신조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사회의 변화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중국에서 ‘코로나19’ 이전에 발생했던 전염병이 당시 중국인의 언어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코로나19’이전의 전염병으로 인해 만들어진 신조어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만들어진 신조어를 비교해서 검토하였다.

2020년 중국의 10대 신조어를 분석한 결과, 6개는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며, 나머지 4개는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 관련 어휘(5개) 가장 많았는데, 그중에서 ‘코로

나19'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어는 2개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의학용어(4개)가 두 번째로 많았는데, 이는 모두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휘로 선정되었다. 해마다 선정되는 신조어로 의학용어가 선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2020년은 유독 의학용어가 많이 선정되어 '코로나19'의 파급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한편,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어휘 4개는 경제 관련 분야(3개)와 항공우주 분야(1개)가 선정되었다. 이들 신조어의 발생 원인과 선정 배경을 통해 어느 때보다도 '단결'과 '애국'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사회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처음 중국에서 발견되었음에도, 국내(중국)와 국외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를 드러냈다. 예를 들어, 2020년도 국내(중국)를 대표하는 한자와 단어로는 각각 '民(인민)'과 '脫貧攻堅(빈곤 탈출의 난관 돌파)'가 선정되었는데, 이는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중국 인민의 노고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빈곤 탈출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했다는 중국 정부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외를 대표하는 한자와 단어는 각각 '疫(바이러스)'과 '新冠肺炎疫情(코로나19)'이 선정되어, '코로나19' 이슈를 국제사회(외부)의 문제로 치부하려는 경향을 읽을 수 있었다. 이는 2020년 미·중 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발견되어 그야말로 었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해였지만, 내·외부로부터 발생한 악재를 오히려 내부결속을 다지는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 중국 정부의 의도가 언어에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중국은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실책을 폭로하거나 현 상황의 암울함을 토로하려는 민중의 목소리가 사실적으로 언어생활이나 선정어휘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결코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언어에 반영된 중국의 '코로나19'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관련 중국어 말뭉치(corpus)를 제작해 '코로나19' 관련 신조어는 물론, 해당 기간에 사용 빈도가 높았던 어휘를 모두 조사하고, 분석해야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국가에서 선정한 올해의 단어와 신조어만을 다뤄 중국인의 목소리를 전부 담을 수 없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언어는 살아있는 유기

체인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인 만큼,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게다가 ‘코로나 19’는 여전히 인류에게 정복되지 않고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언어변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를 심화한다면 중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參考文獻

- 이수진, 강현아, 남길임, 「코로나-19 신어의 수집과 사용 양상 연구-주제 특
적 신어의 수집과 사용에 대한 고찰」, 『한국사전학』 제36호, 2020.
- 이해미, 「코로나 시대의 신조어, 일본 사회」, 『비교문화연구』 제60집, 2020.
- 최태훈, 「코로나19로 촉발된 미중 미디어 전쟁 양상 환구시보 사설 비교를 통한
비판적 담화분석」, 『비교문화연구』 제59집, 2020.
- 陳明珠, 謝羣, 「新冠肺炎疫情外宣新聞報道的模糊限制語研究——以 People's Daily
爲例」, 『湖北經濟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版)』第17卷 第9期, 2020.
- 陶源, 趙浩, 「論應急語言能力視角下的新型冠狀病毒及新型冠狀病毒肺炎術語命名」,
『北京第二外國語學院學報』 第1期, 2020.
- 丁曉強, 張少軍, 李善同, 「中國經濟雙循環的內外導向選擇」, 『經濟管理』第2期,
2021.
- 段妍, 「新中國成立以來應對重大突發疫情的歷史回顧與經驗啓示」, 『上海師範大
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6期, 2020.
- 侯敏, 滕永林, 「詞述中國戰“疫”」, 『語言戰略研究』第3期, 2020.
- 李成偉, 「農村標語的功能,特徵,問題及建議——以2020年新冠肺炎疫情防控標語
爲例」, 『視聽』04, 2020.
- 劉丹青, 馮志偉, 王輝, 李宇明, 王春輝, 方寅, 趙世舉, 鄧畢娟, 「突發公共事
件語言應急多人談」, 『語言戰略研究』第2期 總第26期, 2020.
- 劉密霞, 王益民, 「後疫情時代政府治理中的個人數據使用與保護問題探析」, 『雲南
行政學院學報』第1期, 2021.
- 劉芹, 「盤點2009 年度十大流行新詞語」, 『新作文』, 2009.
- 劉帥, 「新冠肺炎疫情對中國區域經濟的影響」, 『地理研究』, 第40卷 第2期, 2021.
- 饒高琦, 「戰疫語言服務中的語言技術」, 『雲南師範大學學報』第4期, 2020.
- 陶源, 趙浩, 「論應急語言能力視角下的新型冠狀病毒及新型冠狀病毒肺炎術語命名」,
『北京第二外國語學院學報』第1期, 2020.
- 田永芳, 「語言與社會互動的典型意義」, 『名作欣賞』第9期, 2020.

曾泰元,「透過詞典探新冠」,『英語世界』06, 2020.

張莉,「新冠肺炎疫情背景下我國數字經濟加速發展」,『網絡安全和信息化』第11期, 2020.

張樹錚,「“非典”時期社會語言生活的典型意義——從“非典”時期看語言與社會的互動」,『山東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5期, 2003.

趙丹丹, 萬冰彬, 鄭繼媛, 王玉婷,「新冠疫情衝擊影響特徵及行業差異性研究」,『價格理論與實踐』第3期, 2020.

王春娟,「常態化疫情防控下零售業數字化轉型分析」,『時代經貿』第1期, 2021.

王雪情,「看“無接觸配送”如何“解鎖”物流配送新模式」,『現代商業』第35期, 2020.

<https://covid19.who.int/>

<http://ncov.mohw.go.kr/>

http://www.moe.gov.cn/s78/A19/s8358/moe_815/tnull_18000.html

<https://eiec.kdi.re.kr/issue/infographic.do>

<https://www.who.int/brunei/news/infographics---english>

<https://circ.kookmin.ac.kr/xe2010/knowledgemap/13201562>

www.365master.com

<https://www.ciftis.org/>

<https://public.oed.com/blog/the-language-of-covid-19/>

<https://www.livescience.com/ways-covid-19-changed-the-world-2020.html>

Abstract

China's COVID-19 in Language - Focusing on the top 10 New Words of 2020

Kim, Ju A

As COVID-19 has hit the world, new vocabulary and expressions (new words) are being produced and distributed in large quantities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is language change has been widespread by expanding its scope to social and structural changes, as well as to the areas of life and psychology, to refer to and describe the disease COVID-19. As such, the newly coined words and the vocabulary used during this period caused by COVID-19 will allow us to read the platform of the society facing COVID-19.

COVID-19 hit the global community, but just as each country's policy direction and people's response differed widely, the language change caused by COVID-19 was in a society, but it developed in different ways from country to country. As language is a tool used by humans, a living organism, it repeats creation and extinction. Furthermore, as COVID-19 is still not conquered by humans, its impact is expected to continue for the time being.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ocial changes and aspects of the Chinese people's experience in the face of COVID-19 through language changes that have occurred in Chinese society since the discovery of COVID-19.

Key words : COVID-19, China, neologisms, infectious diseases, Language change

투 고 일 : 2021. 4. 10. / 심 사 일 : 2021. 4. 15.~ 2021. 5. 15. / 게재확정일 : 2021. 5. 20.

